

# 자유학기제와 문화예술교육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김 보 성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 자유학기제와 문화예술교육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김 보 성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부천문화재단  
**ISSUE** PAPER  
이 슈 페 이 퍼

발행처 부천문화재단  
발행인 이진선  
편집인 손경년  
연구기획 이윤이 문화정책팀장  
신정호 문화정책팀  
박효빈 문화정책팀  
발행일 2015. 10.

---

이 보고서는 최근 문화예술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내용으로 부천문화재단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부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들어가며
-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
- 아일랜드 전환학기제
- 자유학기제 세부 내용과 특징
- 지역사회학교와 문화예술교육
- 자유학기제 시행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 나가며

## 저자 소개

김 보 성

-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예술경영 석사
- 경남콘텐츠진흥원 원장
- 現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 자유학기제와 문화예술교육

### 1. 들어가며

꿈과 끼를 찾는 자기주도학습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그간 과도한 학업 경쟁으로 지적받아온 기존 교육 체계에 대한 반성에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그 현실과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열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시험 성적을 올리는데만 급급하게 되고 이는 '사교육'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며

둘째,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지침도 부족하며 주위에 도움을 받을 사람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미래를 향한 방향 설정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학을 진학한 후에도 자기가 선택한 전공이 어떤 분야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정하고, 70%에 육박하는 대학진학률에 비해 대학전공 졸업 후 진로와의 일치도가 상당히 낮은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는 '자유학기제'라는 제도를 2013년에 도입했으며 2016년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즉, 중학생들에게 '입시지옥'을 잠시 탈피해서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부여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개인에게 적합한 직장선택까지도 가능케 하고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자유학기제'는 성실적으로 줄 세우 가려 뽑는 대학입시제도가 유지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 땅의 중학생들에게 어떤 '자유'스러운 계기를 줄 수 있을까.

## 2.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 중 하나로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는 2013년 42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년간 확대시행을 거쳐 2016년부터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 전면 도입을 앞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즉, 중학교 3년의 과정 중 한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 기존의 교과과정 이수를 위한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로 에게 자율적인 진로 탐색과 동아리 활동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 기간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접하게 되는데 오전에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기초 과목을 공부하고 오후 시간대에 학생 개개인의 진로 탐색에 시간을 할애한다. 또한, 수업 진행 방식도 일방적인 강의를 지양하고 입시를 위한 수동적인 교육방식 대신 토론, 실습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학생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유학기제의 시행은 주로 입시 부담이 적은 중학교 1, 2학년 기간 동안 한 학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이루어진다.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게된 목적은 학생들의 '자아 발견'과 '진로 탐색'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의존해 자신의 기와 꿈을 제대로 발견할 기회가 마땅치 않은 것이 아픈 현실이라 하겠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4년 학교진로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31.6%, 고등학생의 29.5%가 장래희망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적성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다.<sup>1)</sup>

1) 자유학기제 온라인정보시스템(<https://freesem.moe.go.kr/freesem>)

### 3.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란?

전환학년제는 아일랜드의 15~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아일랜드에 도입된 지 약 40년이 되는 제도이다. ‘전환학년(Transition Year)’동안 학생들은 정형화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잠시 해방되며 교내외에서 주로 체험에 의한 학습을 통해 현장을 배우고 자신의 적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미래 설계 및 진로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 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추진 배경

아일랜드에서 1970년대 초반에 ‘전환학년’(Transition Year) 제도가 시작된 것은 “학생들이 학창시절 1년을 시험에서 해방되어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매우 간단한 이유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아일랜드의 중·고등학교 학제를 보면 만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6년 동안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만12세에 중학교 1학년이 된다. 한국과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Secondary School이라고 하며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다니게 된다. 1~3학년을 Junior Cycle 4~6학년을 Senior Cycle이라고 하며 4학년에 해당하는 해를 ‘전환학년’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아일랜드의 중·고등교육과정인 주니어 사이클(Junior Cycle)과 시니어 사이클(Senior Cycle) 각각의 과정은 졸업시험을 보게 되며 그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 또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좋은 고등학교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시험 준비를 위해 획일적인 교육을 받고 높은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만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중등 과정이 끝나고 1년 동안 ‘전환학년’을 두어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학생 자신들의 진로 및 장래 직업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전환학년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sup>2)</sup>

2) 꿈의 수업 자유학기제, 아일랜드에서 찾다, 2015.1. 양소영, 미디어숲

## 나.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도입 목적

아일랜드에서 '전환학년(Transition Year)' 제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입시 위주로 공부하는 시간을 탈피해서 학생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보다 성숙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시간을 할애해 주고,
- 학생들 간에 협동심과 지도력을 키워주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사회성을 발전시켜주며,
- 입시 위주의 정형화된 공부를 탈피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자유롭게 찾고 이를 통해 향후 어떤 직업 및 직종으로 진출할 것인가와 이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주며,
- 입시 위주의 정형화되고 수동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나아가 상급과정에 올라가서는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 다.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운영 프로그램

전환학년 기간 동안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 필수 과목으로 영어/수학/외국어 등 핵심과목을 공부하며 이는 4~5학년이 되면 준비해야하는 졸업시험을 위해 기초를 꾸준히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 선택과목으로 물리/화학/생물/응용수학/역사/지리/비즈니스/경제/회계/음악/미술/종교 /Design & Communication/Home Economics/Classical Studies/Construction Studies/라틴어/독어/불어/스페인어 등이 있는데 개인별 적성과 향후 전공을 고려해 미리 공부해보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간표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다.
- 모듈 수업. 두 번째의 경우 보다 더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어서 수업 내용이 학교에 따라 훨씬 더 다르다. 정규 선택 과목이 아닌 것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해하면 된다. 시간표 역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학기별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요일별로 나누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을 12주 단위로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과목을 1년 동안 공부하되 특정한 요일 3-4 Periods를 할당해서 공부하기도 한다. Extended Essay/심리학/건축학과 같은 매

우 아카데미한 수업에서부터, 갈등 연구/영화 연구/법 연구/저널리즘과 미디어/국제 정치/Team and Leadership Skills 등의 사회성 짙은 수업도 있고, Mini Company 운영/주식 운용/요리/스포츠 코우칭/인테리어 디자인/패션 디자인/프로 그래밍 등과 같은 실용적인 수업도 있고, Speech & 드라마/사진/웹 디자인/Film Studies/작곡 등과 같은 예술성 짙은 수업도 있다.

- 다양한 액티비티. ECDL 취득 과정(European Computer Driving License)을 신청할 수도 있고(모듈 수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방과 후 활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유명 인사 초청 강연회, Fashion Show 개최 등이 있다. 대개 2-4주 정도 Work Experience 기간이 있고(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회사나 작업 현장에 가서 직접 해보고 리포트를 써서 제출해야 한다. 병원/사무실/농장/신문사/IT회사 등), Community Service(지역 사회 봉사 활동 등) 기간이 있는 학교도 있다. 그리고 대개 3박 4일 정도 어드벤처 센터 같은 데로 여행가서 팀워크를 다지는 여행 프로그램도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주로 사립학교) 부활절 방학이나 중간 방학을 이용하여 단체로 유럽 문화 여행/중국 여행/아프리카 및 남미 봉사 활동을 떠나기도 한다. 또 외국어 습득을 심화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독일/프랑스/스페인 학교 등과 4-10주 정도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일정 기간 다른 나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는 학생도 있다. 론 여기에 스포츠 활동을 비롯한 방과 후 활동도 다른 학년에 비해 더 활성화되어 있다.<sup>3)</sup>

3) '자유학기제'란? 자유학기제의 정의와 세부내용 및 찬·반 입장, 해외 교육제도 사례 살펴보기, 대신생활 정보/이슈&트렌드 2015.07.03

## 4. 자유학기제 세부 내용과 특징

### 가. 오전 수업 : 기본 교과 학습

먼저 오전 수업에는 국·영·수 등 기본 교과 학습이 이뤄진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장려하는 제도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학업도 병행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본 교과 학습 방식이 이전과는 다른데 기존의 교사가 수업의 중심이 되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었던,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며 조별 모임이나 토론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교과서에서 벗어난 현장 체험을 진행한다.

### 나. 오후 수업 : 학교 자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오후 수업은 각 학교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며 주로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대표적인 운영 모형 4가지를 제시했는데,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진로탐색과 동아리, 예체능 등이 있으며 각 학교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위 모형 중 한 가지 모형에 착안하여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 된다. 4)

진로탐색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과 연계한 진로교육</li> <li>• 2회 이상의 전일제 진로 체험활동</li> <li>• 진로캠프, 사회인사 특강 프로그램</li> <li>• 자기주도 진로 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에 따른 다양한 동아리 개설</li> <li>• 학교간 동아리 연계 활동</li> <li>• 청소년 단체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강사를 활용한 예체능 교육 내실화</li> <li>• 학생의 희망을 고려한 예체능 프로그램 편성</li> <li>• 예체능과 교육간 융합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관심 분야 맞춤 프로그램 운영</li> <li>• 학생들의 원하는 프로그램 지속 개발 보급</li> </ul>

※ 출처: 자유학기제 온라인정보 시스템

## 다. 평가 방식의 변화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수업의 주체가 교사가 아닌 학생이 되며 평가 방식도 이에 맞춰 바뀌게 되는데 기존의 학기에서는 중간·기말 고사와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했지만, 자유학기제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고, 학생 상호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교사는 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와 학업 성취도에 대해 서술식으로 자세하게 작성하게 된다.

## 라. 자유학기제 성공을 위한 노력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꿈꾸는 교육과 다르지 않기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는 교육주체가 되는 학생,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 ▪ 학생

자발적인 자기 성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유학기 동안 주어지는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수동적인 교육방식에 젖어있는 자아에서 깨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학과 체험, 현장 체험, 직업 체험 등을 통해 자신을 설계하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 교사

기존 교육방식을 탈피함에 따른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펼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가르침을 제공하려는 의지로 불타야 한다.

### ▪ 학부모

또한 그저 좋은 제도이니까 '잘 되겠지'라는 생각 대신 자유학기제에 관심을 두고 직접 참여까지도 할 수 있는 열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비틀린 교육 열정으로 비치기도 하는 학부모들의 자식 일류대학 보내기 염원은 '자유학기제' 역시 입시 공부를 위한 여벌의 시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정신과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학생-학부모’ 주체별 사전 간담회 및 교육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책이해도를 높여주는 정지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 지역기업과 지역사회

자유학기제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 밖 직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체험이 가능할 때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지역기업과 지역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지역기업과 지역사회는 학생들과 교사가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탐구 활동의 주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 5. 지역사회학교와 문화예술교육

원하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lifelong-learning)’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기존 정책과 구별되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정책이 2004년부터 실시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보다 앞선 2002년부터 경기문화재단 부설기관인 기전문화대학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으로 규정하고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예술을 매개 또는 수단으로 활용한 문화(적)교육’을 의미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장르의 실기 기능교육을 의미하는 기존의 ‘예능교육’과 구별된다. 예술교육은 본래 그 자체로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기본 소양교육으로서의 의의가 없지 않았으나, 예술대학 입학과 예능분야 전공을 위한 예비 기능실기 교육의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그 의의가 대부분 퇴색되었다. 입시를 위한 예능교육이 아니라, ‘예술에 의한 또는 예술을 통한 교육방법론’으로 창조적 표현력과 풍부한 감성을 기르는 문화예술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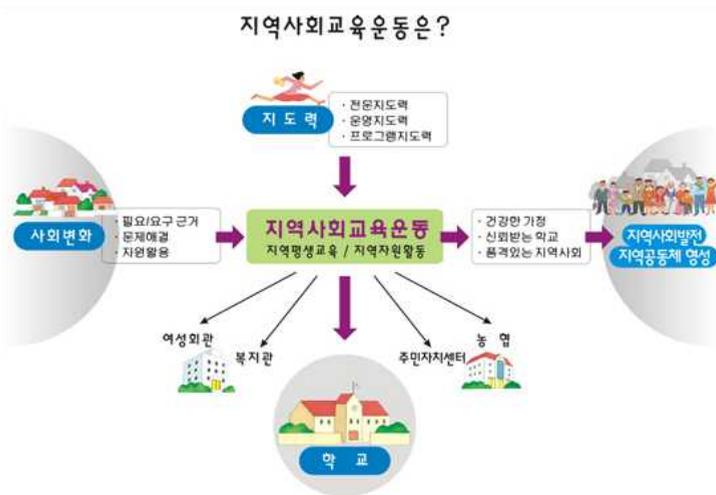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공공문화기반시설(지역문화센터 등)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필수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의미하는 ‘지역사회학교’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50년대에 도입된 개념이지만,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해 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학교’의 개념을 학교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을 포함한 다원적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의 교육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이 앞서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필요한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지난 10년간 문화정책의 전면에서 전국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자유학기제에 전향적으로 맞물려서 지역사회가 ‘한 아이를 키움에 있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경구를 21세기적 교육방법론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 가. 지역사회학교운동에 대한 이해<sup>5)</sup>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학교운동에 대해서 ‘지역사회 내 모든 물적·인적 자원을 규합하여 지역의 교육적 요구와 이해를 충족시킴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sup>6)</sup> 운동’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협력운동입니다.
-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모교육을 실천하는 부모교육운동입니다.
- 즐겁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 위해  
학부모의 교육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학교자원봉사 운동입니다.
- 밝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학교를 개방하여 주민의 성장을 돕는 학교중심 평생교육 운동입니다.



5) 본문의 내용 대부분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http://www.kace.or.kr>) 사이트에서 인용

6) 필자에 의해 강조 표기됨

## 나. 우리나라의 지역사회학교의 시작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학교에 관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을 돕기 위하여 내한하였던 유네스코·온크라 파한 사절단이 1953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총 108개의 건의사항 가운데 지역사회학교에 관한 건의가 포함 되어 있다.

### ▪ 건의 13

초등학교 커리큘럼은 생활을 위한 교육이란 점을 강조해야 한다. 생활에 필수적인 것과 일상 활동이 커리큘럼 향상을 위한 기초로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 ▪ 건의 14

교육의 자료는 교과서와 함께 지역사회 및 기타 생명이 있는 근원으로부터 발췌하여야 한다.

### ▪ 건의 28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활동에 교사 및 아동의 흥미 및 협동이 증가되어야 한다.

### ▪ 건의 29

사회활동을 위한 지역사회기구에 자극을 주는데 있어서 학교관계자의 지도 임무는 더욱 강력화 되어야 한다.

### ▪ 건의 30

학교의 설비는 지역의 모든 교육적 교양적 활동을 위해서 이용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1954년에는 올센 (Olsen) 의 ‘학교와 지역사회’가 우리말로 번역 발간되었다. 지역사회학교가 이론 보다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논의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실천을 해온 사례들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실천들은 이론적 뒷받침을 받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그 후 1956년 경기도에서 ‘지역사회학교를 건설하자’라는 표어를 장학방침으로 삼았다. 1957년에는 경기도의 장학지표로서 ① 지역사회학교의 건설 ② 학원윤리운동 전개의 2

대 지표가 장학요강으로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문교부는 1961년 '지역사회학교'를 '향토학교'로 바꾸고 문교부의 장학방침으로 정해져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끌어 올려졌다. 향토학교는 1971년 전남 고흥군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교육의 사회를 위한 '온 마을 교육'이 실시되었다. 온 마을 교육의 목적은 지역사회를 교육적으로 성장시켜 밝고 잘사는 마을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온 마을 교육은 1972년 시작된 '새마을 운동'의 실천사업으로부터 교육적 과제와 목표를 도출하고 또 새마을 사업에서 요구되는 심리적 행정적 요인을 조성하고 촉진하기 위한 '새마을 교육'으로 바뀌게 되었다.

## 다. 민간운동으로서의 지역사회학교운동

우리나라에서 민간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지역사회교육운동이 시작된 것은 1968년 동아일보사와 주한미국공보원이 공동 주최하고 "Community Action in A Changing World"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영화 한 편이 소개되면서 부터이다. 'To Touch a Child' 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미국 미시간 주 프린트 시의 지역사회 학교 활동을 소개한 것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영화를 본 몇몇 사람은 영화시사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고 1968년 8월 주한미국공보원 스미스 부원장 집에서 우리나라의 각계인사 40명이 초대되어 영화 시사회가 개최되었다. 최초로 서울 가회동의 재동초등학교가 학교 문을 열고 주민을 위한 교실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하여 학교운동장을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개방하고 주민을 위한 취미교실, 어린이들의 주말학교, 방과 후 활동 등이 시작되었다.

## 라. 미국의 지역사회학교운동

1930년대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당시 미시간 주 프린트 시는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활기를 띠어 전국 각 처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나 공황으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게 되었고, 서로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게 됨으로 인해 그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프린트 시는 청소년 범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으며 학생들의 학습 실력은 떨어져 가고 있었고, 교통사고, 익사 사고율도 높았다. 급기야 프린트 시는 미국에서 가장 좋지 못한 도시 중의 하나라는 평을 받게 되었다.

이 때 맨리(Frank J. Manley)라는 체육교사는 학교시설을 청소년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여러가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체육관, 수영장, 식당, 도서실과 같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오후 3시 30분 후에는 문을 닫아 버리기 때문에 학교의 많은 시설들이 학교의 관리인이나 청소부에 속해 있고, 다른 목적으로는 전혀 쓰여 지지 않고 있었다. 7~8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는 협력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프린트 시에서 세 번이나 시장을 역임하고 자동차 공업으로 성공한 마트(Charles S. Mott)라는 한 사업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프린트 시 교육위원회는 학교를 개방하여 청소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모든 학교가 청소년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청소년 범죄율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고 청소년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주민 전체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교육시킬 것을 프린트 지역사회학교 운영위원회는 결정하였다. 그리고 성인교육, 가족프로그램, 직업교육, 문화활동 그리고 건강문제 등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그 후 대단한 변화를 가져와 5년 동안에 미국의 청소년 범죄율은 전국적으로 50%가 증가되었으나 프린트 시는 10%가 감소되었다. 또 20만 인구의 프린트 시에서 성인교육을 받는 사람이 8만이나 되었으며 이들은 1,800개의 다른 학과에 참가하고 있었다. 현재 미국 내에서 400개 도시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네소타 등에서는 이 운동을 주(州) 법으로 정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프린트 시의 학교들은 주민들에게 문을 열어 그들을 학교로 끌어들이 학생들의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하여 프린트 시의 해체된 지역사회를 하나로 결속시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저력을 키우는데 학교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미국은 1974년 연방령으로 지역사회교육령을 선포하여 모든 공립학교가 지역사회학교로서 활동할 것을 법으로 정하였다.

## 바. 문예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처로서의 지역사회

지역에 터를 잡고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과 직접적인 체험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을 연결하는 매개자(Art Educator)의 존재 여부는 지역의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활력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교문화 예술교육에 투입될 수 있는 강사인력은 학교에서 직접 양성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가능하다. 경험이 풍부하고 활동적인 교사들에 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개발된 교과를 가르치고 운영할 강사인력의 양성은 가능한 지역의 예술가 작업실 또는 민간창작집단 그리고 공공문화기반 시설의 교육전담팀 등에서 담당해야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동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지역거점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단위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양성이 바로 실천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실천현장에 결합된 인력들을 위주로 하는 인력양성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비로소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투입될 강사인력과 프로그램의 양성과 개발도 안정적이고도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된 운영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거점들이 생성되고 바로 그곳에서 프로그램과 인력의 양성이 우선 이루어져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구체적인 단위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력양성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인력양성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력양성의 일차적 책임주체를 단위지역이 아니라 중앙 또는 광역단위 지원센터가 맡아 운영을 시작하면 교육에 일차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뿌리박고 있는 사람들보다 '자격증 취득'에 우선 목적이 있는 떠다니는 인력들 중심의 집체교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 우선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에는 부유하는 많은 자격증 소지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취로)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조차 부인할 수 없다.

## 6. 자유학기제 시행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자유학기제가 입시교육과 일시 단절하고 중학(2년)생에게 자유로운 상상력을 제공하고 자기 적성과 관심사를 알아가는 등,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공공문화기반시설(공연장, 전시장, 문화재단, 박물관 등)에서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수업을 연계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경험 많은 예술강사 집단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예술교육 관련 종사자가 10만 명이 넘고 문화예술교육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예술강사도 5천명이 넘는다. 현재 광역문화재단 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기초지자체 별 예술강사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와 접목할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기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능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현실화'란 상대적 업무독립성이 가능한 독자조직체계와 직접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갖춘다는 것을 말한다. 기초문화재단들도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보유한 재단과 그렇지 않은 재단이 있어 기초지자체마다 편차가 있지만 가급적 학교 밖 연계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학교 내 교실보다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로 교육망을 구성하는 방안을 각 교육지원청과 기초문화재단 관계자들이 마련해야 한다.

경기지역의 경우는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 정책과도 긴밀하게 공조해서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자유학기제 참가학생들이 새로운 문화공간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제약조건(학교 밖 학생이동에 따른 책임소재 등)으로 학교 내 수업의 연장으로 대부분 진행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학교 내 교실수업의 연장으로 진행되는 경우 '자유학기제'의 정책이 차별성을 갖고 새로운 교육성과로 인식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초문화재단들이 최우선 정책으로 자유학기제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학교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그 지역의 인적, 물적 특성을 활용해 차별화된 지역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특성화된 지역예술강사 인력을 훈련하고 배출하는 지원사업도 기초

문화재단의 역할이어야 한다.

기초문화재단은 학교별로 근거리에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나 예술강사 및 문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 관련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전담교사들 대부분 지역정보에 어둡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다중이용 시설에 적용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공모·개발하는 노력도 치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태(환경)학습원이나 곤충박물관 등에는 어르신부터 유치원 어린이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한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체험프로그램을 문화예술교육용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면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 7. 나가며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의 대표적인 운영 모형 4가지(진로탐색과 동아리, 예체능, 선택 프로그램 활동)를 제시했는데, 물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다. 그러나 21세기 국가 또는 지역사회 경쟁력의 핵심은 '얼마나 창조력을 극대화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세계 각국의 인문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창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문화예술의 영역'에 있다는 연구를 통해 전문예술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가 제시한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어디에도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Old Wisdom'으로 불리는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가 농축된 전통문화(예술)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주는 인문학을 밑거름으로 삼고 그 안에 각종 예술장르를 버무려 만들어 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감성과 인성을 한없이 자극하여 창조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교육놀이 매개체가 될 것이다.